

모든 건 그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놈한테 맡겨놓으세요

29면에서 계속

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고 했죠. 여러분이 그걸 짐작하시죠? 고정됨이 없이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하고 만나고 먹고, 고정됨이 없이 말합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시반시도 그냥 고정됨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고 부서지고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먼지 없을 자리가 어딴겠느냐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가져오는 그 재료를 보면 모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전체 포함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런 것이 마음에 따라서 부딪치게 되고, 그 업식으로 인해서,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서 나한테 지꾸 연관이 되는 거니까 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말합니다. 내 몸속에 들어서 자꾸 그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업식이라고 하고 업보라고 하고 유전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다, 아픔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긴 거다, 업보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고라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를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게 준 것이다, 이끌어주는 재료가 주어진 거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 관찰하고 거기다가 (가슴을 짚어 보시며) 놓고, 내 마음의 주인한테 맡겨놓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냥 틀고 앉아서 '이게 뭐고?' 라든가, 의정을 강제로 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다면은 그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일체 만법의 근원이며 그 근본을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그냥 '나는 주인공을 찾았는데도 이렇습니다.' 하지 말고,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없는 것을 찾는 것이야 이게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즉 암흑 속에서 밝음이 불끈 솟아서 불이 일어나면 모두가 밝게 살았어! 말입니다.

그러니 말로 이라고 저라고 이라고 저라고, 이 병원에 가봐야 옳을까 여길 가봐야 옳을까 저길 가봐야 옳을까 이러지 마시고, 내 중심에서 '이거는 병원을 좀 갔다와야 되겠다.' 한다면 그대로 가는 것도 법이고, '병원엘 안 가도 이 한마음 속에 이 모든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주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대로 거기다 놓고 실험을 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 것을.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내 속에 들은 의식의 그 마음들과, 여러분이 따지고 보면

하나가 아니죠? 이 속에 들은 수십억의 그 모습들이 다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해주는 바람에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러 오더라도 나에게 말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내 이 마음에도, 모두 한마음에다 넣고 저 마음도 더불어 같이 한마음인데 어찌 스님의 마음인데 이 속에 아니 계시랴! 일체 만법이, 또는 만인의 마음이 또는 일체제물의 마음이다, 내가 아파서 응해달라고 하는데 어찌 응하지 않으랴! 그렇게 믿고 마음으로 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응신(應身)이 돼서 약사(藥師)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병을, 몸에 들은 여러 의식과 더불어 같이 한

깨닫은 무엇이고?" 하고 또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동자 대답하기를 "내가 부처님한테 가면은 부처님이 하나가 되시고 부처님이 내게로 오면은 내가 하나가 되니, 어찌 차이가 난다 하겠습니까?" 했더랍니다.

그러니 "그러면,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또 물었습니다. 이리 가도 하나고 저리 가도 하나라니 말입니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부처님께서 또 물었습니다. 이 소년은 "박영굴이 담 너머로 넘어가서 박이 열린 까닭입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이 또 "박은 그대 여여한가?" 했더랍니다. "박은 제 나무에서 익어서 맛이 좋습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만공에 꽃이 두루 피고 향기가 두루 나고 만 가지 맛이 나는구나. 그대로 그냥 그냥

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 모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같이 만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철 나와서 만남인데 이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느냐, 구덩이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의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약하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내 마음, 이 한마음 속에 더불어 같이, 내 면이나 외부나 모든 것이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이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놓으시고, 거기다 맡기시고 어떠한 억울함도 거기다 맡겨놓고,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맡겨놓고 '네놈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물러서지 말고, 걸으라는 부드럽게 말하시고 거기다 맡겨놓으면, 자기라는 게 없

내가 그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 우리 집에 식구가 아파니다. 아픈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는 중도에 나를 졸 앓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가지고는 '아픈 것도 너 알아서 해.' 하고 내가 미련스럽다보니까 '너 알아서 해!' 하다보니까는 한 보름 전에 딱 부딪치더라고요, 그게요, 왔습니다. 그게요, 아, 그런데 내가 지금 거머잡고 있어도 행동한다거나 말 같은 이런 거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습성 있었습니까? 습성, 버릇!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큰스님께서 좀 교정을 시켜주십사 하고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삼천 마일짜리 모터를 돌리는 모양인데, 이제 삼천 볼트 전기를 인양스님한테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허락하셨죠?

큰스님: 그 모든 건 정심(定心)에서 나오는 거니까 정심에다가 모든 걸 놓으면 망상이든 뭐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건 그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놈한테다 맡겨놓으면은 그대로지, 어디 또 망상이 따로 있습니까? 습성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습도 그놈이 저지른 거니까 그놈한테다 놓으십시오.

질문자(남): 그런데 굉장히 묘한 게 많습디다. 제가 술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아침에 숙이 쓰리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먹고 쾌한다 하니까는 아침에도 쾌하고요. 뭐, 밥 한 그릇 다 먹고 회사 출근하고요, 이 신기합니다. 그게 또.

큰스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습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고, 다스리는 것은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실례가 될지 모르니 조금, 한 그릇 두 그릇 될 먹는다 하는 마음만이 가려면 다스리지 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라가 아니고, 자기에 맞게 용도에 맞게, 자기한테 아주 알맞게 모든 것을 행하시면 그게 바로 정행입니다.

질문자(남):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그런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좀 남았는데, 저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려튼 참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습성도 놓으십시오. 질문자(남): 예, 예. 큰스님: 그럼 됩니다. 질문자(남): 큰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정하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 위 본문은 1992년 5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시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아마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이 도리, 미묘한 도리를 여러분은 직접 실험해보십시오.

마음이 돼서 고쳐 주시고, 어떠한 애로가 있다면 관세음이 돼 주시고 명이 짧다면 칠성(七聖)이 돼 주시고, 응신으로 찰나에 드셨다 나시고 드셨다 나시고, 그리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한다면, 그래서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정성을 지극하게 한다면 바로 지장이 돼서 여러분의 그 의식과 더불어 한데 합쳐서 그 지옥문을 다 허물어뜨리고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전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료한 마음의 슬기로움 그 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바깥으로 그렇게 꼬달리고 그러다보면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며 어떻게 모든 것에서, 그 암흑 속에서 벗어나서 이 태양을 다 보고 행하시겠습니까?

옛날이라고 할까요, 내일이라고 할까요, 오늘이라고 할까요. 어느 동자가 말입니다. 부처님과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동자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야! "예." "내 발과 네 발이 차이가 어떠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동자 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

익었습니다." 했더랍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연결해서 짐작하게 그 과정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경건으로 알려고 하지도 말고 내 마음 가운데서 '아, 양발이 같을 수가 있고, 너한테로 가면 네가 하나 가되요 애한테로 오면 이게 하나로 되고 돌아 안니 고로 그 하나는 담 너머로 박영굴이 넘어가서 박이 열린다.' 그 박도 익었어야죠, 또, 하하하. 그래야 제 맛이 나겠죠? 하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마음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수없는 역경을 통해 진화해서 나오면서 그래도 선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인연이 없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손수건을 하나 들어도 인연입니다. 이 손수건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손수건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써주니까 바로 이 손수건이라는 빛이 있

어집니다. 부드럽게 말하시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아마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이 도리, 미묘한 도리를 여러분은 직접 실험해보십시오. 실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남): 저, 울산의 아들입니다. 저는 조금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이름 지어놨습니다. 이름뿐이고요,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과정이 큰스님 법문하고 저의 인연하고 백분의 일미리도 오차가 안 난다는 걸 자신하고 믿고 갑니다. 그래 왔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아픈 것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아팠는데, 고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더군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거울을 딱 들여다보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거기에,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 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3×6식문자 (7.4×14.5cm)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한복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툰대전사자 / 원기동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악취아광연봉연꽃양초 / 악취1호예술연꽃양초 / 아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는 상품으로 제작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